

극단 배니싱 포인트
Vanishing Point

인테리어즈

Interiors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없이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해외초청

작품 소개 Interiors

‘슬프고, 재미있고, 가슴 저미도록 인간적인
매혹의 무대. 체호프의 고전보다 더 풍성하게
전달되는 서브텍스트가 심금을 울린다.’

- 가디언

‘핀 로스의 영상, 카이 피셔의 조영,
그리고 엘리스더 맥레이의 우울한
피아노 음악이 만들어낸 나른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과 만나서 탄생시킨 절묘한 결합.
움직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썸네일 스케치가 펼쳐진다.’

- 헤럴드



<인테리어즈 Interiors>는 벨기에의 유명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 「인테리어 Intérieur」(1894)를 재구성하여
2009년 에든버러의 트래버스 시어터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상징주의 연극을 개척한 대표 작가로서 희곡 『파랑새
L'Oiseau Bleu』(1909)를 통해 191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마테를링크의 작품 중에서도 새롭고 독특한 시도로 평가
받는 이 작품은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찰자를 통해
화목해 보이는 사람들의 내적 갈등을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최면에 걸린 듯한 신비하고 강렬한 체험을 선사하는 무대’
라는 평을 받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공연하였다.

수상

2012 아르거스 엔젤 어워드 작품상

2009 스코틀랜드 연극평론가협회 어워드

베스트 연출가, 베스트 앙상블

‘A beguiling piece of theatre that is sad, funny
and heartbreakingly humane... the subtext comes
across more volubly than classic Chekhov...
deliciously poignant.’ - **The Guardian**

‘An exquisite fusion of heightened behaviour
married to a gorgeously languid atmosphere of
sanctuary created by Finn Ross’s projections,
Kai Fischer’s lighting and Alasdair Macrae’s
melancholy piano score. Combined, a poignantly
beautiful thumbnail sketch of human lives in
motion is the result.’ - **The Herald**

Vanishing Point’s *Interiors*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play *Interiors* (French: Intérieur, 1894) by the legendary
Belgian playwright Maurice Maeterlinck. The production
had its premiere at the Traverse Theatre, Edinburgh. The
original play by Maeterlinck — one of the forefathers of
symbolism, who won the 1911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his play *The Blue Bird* (French: L'Oiseau bleu, 1909) — is
noted for its highly original and unique approach to theatre.
A stranger looks through the window of a remote house
and observes a seemingly happy family, but his perspective
soon reveals their inner conflicts. Acclaimed as “utterly
hypnotic, deeply mysterious and powerfully intense,”
Interiors has toured across the world, meeting audiences in
countries like Italy, France, Chile and Russia.

WINNER

Argus Angel Award 2012

Best Production; Best Director & Best Ensemble

- Critics Awards for Theatre Scotland 2009

VANISHING POINT

단체 소개



The Dark Carnival - ©Mihaela Bodlovic



The Destroyed Room - ©Mihaela Bodlovic



Tomorrow - ©Victor Frankowski



The Beautiful Cosmos of Ivor Cutler - ©Tim Morozzo

배니싱 포인트(영국 스코틀랜드)는 현대 관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극 new theatre를 창조하는 극단
이다. 깊이 탐구할만한 흥미로운 아이디어 또는
이야기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평범함이 비범함
으로, 비범함이 평범함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몽환적이고 어둡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한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시각적, 환기적, 인상주의
적 작품을 만든다. 배우, 디자이너, 음악가, 영화
제작자 및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코소보, 마케도니아, 스리랑카,
프랑스, 코르시카, 이탈리아 등에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Beggar's Opera>
(2009), <Interiors>(2009), <Little Otik>(2008),
<Subway>(2007), <Home Hindrance>(2006),
<Mancub>(2005), <Lost Ones>(2004/5) 등이 있다.

Vanishing Point (Scotland) creates new theatre for
modern audiences. Our work begins with a curi-
osity an idea or a story we are interested in diving
into. We like the ordinary to become extra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to become ordinary, creat-
ing a reality like our own but different dreamlike,
dark, mysterious and beautiful. We are interested
in how action, rather than words, tells stories.

The work is visual, evocative and impressionistic.
We work through collective collaboration, with
performers, designers, musicians, fi lm-makers
and artists. Mainly work includes *The Beggar's
Opera* (2009), *Interiors* (2009), *Little Otik*
(2008), *Subway* (2007), *Home Hindrance* (2006),
Mancub (2005) and *Lost Ones* (2004/5).

Our work has toured throughout the UK as well
as to Kosovo, Macedonia, Sri Lanka, France,
Corsica and Italy.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Matthew Lenton - ©Vanishing Point

‘세계 각지에서 공연된
배니싱 포인트의
<인테리어즈 Interiors>를
국립극단과 함께 한국에서
선보이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되 아무것도 듣지 않고, 멀리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며, 내부와 외부의 세계가 충돌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뜻합니다.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을 인형으로 표현하여(「알라딘과 팔로미드 Alladine and Palomides」 및 「탱타질의 죽음 The Death of Tintagiles」를 포함한 ‘세 편의 인형극’이라는 부제 하에 발표된 그의 희곡집에서) 그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다 큰 힘에 의해 통제된다는 느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담아낼 다양한 방식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 Interior’라는 아이디어를 파고들어 현대 세상에 배치할 수 있을까? 거미줄같이 연약한 인간의 일상적 희망, 두려움 그리고 굶어마다 마주하게 되는 작은 비극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아닌 내면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극단의 본거지인 글래스고 그리고 우리가 방문 중이던 나폴리. 이 두 도시가 공연의 개발 단계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곳의 주민들은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종종 서로를 내다봅니다. 창문을 통해 타인의 방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정원이나 마당을 공유하거나 서로의 집 앞에 빨래를 내걸기도 합니다. 매일 밤 펼쳐지는 불 밝힌 창문의 파노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듯 글래스고에서 밤마다 불을 밝히는 창문의 파노라마, 즉 어둠에 둘러싸인 작의 빛의 상자들은 <인테리어즈 Interiors>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심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지역은 황무지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겨울이 4개월간 지속되는, 눈 덮인 풍경의 스발바르 제도 롱위에아르뷔엔를 향해서. 그곳에 사는 누군가가 말하길,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겨울을 견디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쳐버리거나 북극곰에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적 없는 곳의 집 또는 먼바다를 향해하는 배를 상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은 빛의 상자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삶을 이어 나갑니다.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지만 다가오는 운명을 감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 2010년 프로그램 중

‘Vanishing Point have toured this production of *Interiors* across the world and we are honoured to be presenting it in Korea in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Theatre Company.’

We soon became fascinated by the simple idea of watching people through a window - seeing but not hearing, observing human behaviour from a distance, observing how people behave in front of each other, as their interior and exterior worlds collide. Maeterlinck intended the family sitting in his living room to be represented by puppets (‘three little dramas for marionettes’ says a subheading on the title page of a collection which also includes *Alladine and Palomides* and *The Death of Tintagiles*), adding to the sense that their lives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other forces. We started to play around with other ways of capturing this sense. How could we explode the ideas of Interior and place them in a modern world? How could we capture the almost gossamer fragility of people’s tiny, everyday hopes and fears, the mini-tragedies that confront us at every turn? How could we communicate what people are thinking, rather than what they are saying?

Meanwhile, the cities of Glasgow, where Vanishing Point is based, and Naples, where we were visitors, began to make an impress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show. Both cities are densely populated and the apartments that people live in often overlook each other. You can see from your window into someone else’s room, people share gardens or yards and hang their washing up in front of each other. On any given night, there is a panorama of lit windows inside which people are cooking, eating, watching TV, fighting, making love. Glasgow is a big influence on *Interiors*. In particular, that nocturnal panorama of lit windows, little boxes of light surrounded by darkness. An hour or two outside Glasgow is the wilderness, but in our imaginations we were drawn still further north, towards the pole, towards Longyearbyen on Svalbard, a snowy landscape where winters last four months, where –as one resident put it – those who are active in the community survive the winters and those who are not either go mad, or get eaten by the Polar Bears. We imagined houses in the middle of nowhere or distant ships on the sea. Little boxes of light, beautiful, hypnotic, enticing, intriguing. Inside all of them, people living their lives, hopeful, fearful, dependent on each other, but oblivious to what fate has in store.

— Original Programme Notes By Matthew Lenton, 2010

매튜 렌튼

매튜 렌튼은 1999년 배니싱 포인트를 설립한 이래 극단의 모든 작품의 연출을 도맡아 왔으며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과도 작업한 바 있다. 최근에 참여한 외부작품으로는 런던 국립극장 스튜디오의 신작 <Journeyman> 그리고 채널4를 위한 그의 영화 데뷔작 <Boy>가 있다. 또한 범유럽 프로젝트 ‘Ecole des Maitres’를 이끌 최초의 영국 감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위치한 루스타벨리 씨아터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연극학교와의 꾸준한 작업을 통해 연기 수업 프로젝트 개발과 프리드리히 뉘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 및 베르나르-마리 콜테스의 <로베르토 주코> 등의 작품 연출에도 힘쓰고 있다.

Matthew Lenton

Matthew founded Vanishing Point theatre company in 1999 and has directed all of the company’s productions. He has also directed for National Theatre of Scotland and numerous other theatres. Recent work outside Vanishing Poin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Journeyman*, a new show at the National Theatre Studio in London and *Boy*, his first film (for Channel 4). Matthew was honoured to be chosen as the first UK director to lead the Ecole des Maitres, a pan-European project. Recently Matthew has worked at the Rustavelli Theatre in Tbilisi, Georgia and has worked regularly at the Royal Scottish Academy of Music and Drama, developing projects with acting students and directing *The Visit by Friedrich Durrenmatt* and *Roberto Zucco* by Bernard Marie Koltes.

시놉시스 Synopsis

겨울. 창문 안 아늑한 방에 여러 친구들이 모여 함께 식사 중이다.
환한 불빛 속에서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기도 하는 그들.
하지만 창밖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이내 슬픔이 찾아 오는데...

Winter. Behind a window, in a cosy room, a group of friends gather for a meal.
The lamps are on, everyone is happy. Talk begins and stories unfold around the table.
There is laughing, flirting, joking, eating and dancing.
But sadness soon threads its way through the occasion,
marked by the appearance of a mysterious stranger outside the window.

<인테리어즈 Interiors>는 노벨상 수상자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희곡 「인테리어 Intérieur」(1894)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Interiors is inspired by Nobel Prize winner Maurice Maeterlinck's astonishing play, *Intérieur*.

Production Note 프로덕션 노트

우리는 우리의 작업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살펴보고, 거기에는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오래전에 쓴 희곡 「인테리어 Intérieur」가 한 부 있었다. 작품에서 노인과 낯선 사람이 외딴집 밖에 서서 거실에 모인 한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 관객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가족을 창문너머로 바라본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딸이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하러 왔지만, 그들을 지켜볼수록 차마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 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가족이 모르는 것. 그의 경험과 그들의 순수.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긴장감을 자아낸다. 가족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노인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의 무게에 짓눌린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들고 가족의 집으로 향한다. 결국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들여다본다. 그들의 눈에 진실을 말하고자 애쓰는 노인이 보인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인테리어즈 Interiors>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마테를링크의 희곡에서 무언가 다른 것, 즉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견했다. 원작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의 아름다움과 음울함은 또한 불길하고 멜로드라마적이기도 하다. - 2010년 프로그램 중

At the Studio we played around with a diverse range of material that seemed, somehow, to be connected. We had a copy of an old play by Maurice Maeterlinck called *Interior*. In this play, an old man and a stranger are standing outside a remote house watching a family sitting together in their living room. Like the audience, the old man watches the unaware family through the window. He has come to tell the mother and father the terrible news that their daughter is dead, but the longer he watches the harder he finds it to deliver the news. Tension emerges from the intangible difference between what the old man knows, and what the family does not know, his experience and their innocence. They go on unaware. At the same time the old man is burdened by the weight of what he knows, even though he is distant from the family. Meanwhile, the local villagers are bearing the body of the dead child up to the house. Eventually, the man goes into the room, but as he does so, the villagers peer through the window. They watch the old man trying to find a way of telling the truth. Mothers and fathers lift their children so they too can see the compelling spectacle. This is not what *Interior* is about, for as we played around with Maeterlinck's play, something else emerged, a new idea, a new scenario. Although the original play is very simple, it is also pregnant with possibility. Its beauty and melancholy get under the skin, but it also seems portentous and melodramatic. - Original Programme, 2010

원작소개 About the Original

원작자 모리스 마테를링크 (1862-1949)

벨기에의 극작가이자 시인,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 프랑스 상징파의 영향을 받아 집필한 시집 『온실 Serres chaudes』(1889)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테를링크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갈등보다는 운명이나 죽음 같은 절대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에 집중하였는데, 그의 대표작 『파랑새 L'Oiseau Bleu』(1908) 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마테를링크의 초현실적이고 감각적이며 상징적인 스타일은 후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으며, 191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Maurice Maeterlinck - ©C.Gerschel

원작 인테리어 Intérieur

「인테리어 Intérieur」는 마테를링크의 대표 희곡 중 하나로서 「알라딘과 팔로미드 Alladine and Palomides」, 「탱타질의 죽음 The Death of Tintagiles」과 함께 ‘세 편의 짧은 인형극’이라는 부제로 1894년 발표되었다. 19세기 사실주의 연극의 반동으로 상징주의를 표방한 그의 스타일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일상생활의 내부에 깃들여 있는 일상을 신비하고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운명의 힘에 대한 감각을 그린 것이 특장으로, 연극적 사건으로 가득 찬 비극보다도 일상의 진실에서 더 큰 비극이 존재한다는 마테를링크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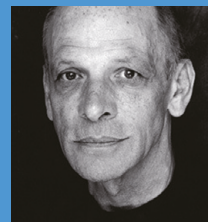
About the Playwright Maurice Maeterlinck (1862-1949)

Maurice Maeterlinck was a Belgian playwright and poet, who brought symbolism to the stage. Influenced by the French symbolists, he wrote and published his first poetry collection *Hothouses* (French: Serres chaudes),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his literary career. Rather than characters and narrative conflicts, his focus was on such absolute and philosophical notions as death and fate — an inclination particularly evident in his most famous work *The Blue Bird*. Maeterlinck’s surreal, sensuous and symbolic style of writing across various literary genres continues to b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many artists today.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in 1911.

About the Original Play *Interior* (Intérieur)

One of Maeterlinck’s most notable works, *Interior* was published in a collection under the subheading ‘three little dramas for marionettes’, which also included *Alladine and Palomides* (French: Alladine et Palomides) and *The Death of Tintagiles* (French: La Mort de Tintagiles). Maeterlinck’s rejection of the 19th century realism in favour of the Symbolist movement is evident in this play, which conveys a mysterious and calm depiction of everyday life. The play is characterized by its dreamlike atmosphere that creates a sense of fateful power operating beyond human capacity. On the whole, Maeterlinck’s message is clear; the truth found in everyday life is even more tragic than a tragedy fraught with dramatic events.

Cast 출연진



피터 켈리
PETER KELLY
피터 역
PETER



폴린
골드스미스
PAULINE
GOLDSMITH
도로시 역
DOROTHY



폴 토마스 히키
PAUL
THOMAS HICKEY
폴 역
P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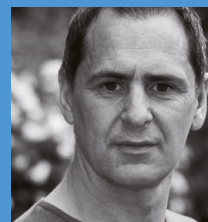
오로라 페레스
AURORA PERES
오로라 역
AURORA



엘리시아 달리
ELICIA DALY
나레이터 역
NARRATOR



올리비아
베로우클러프
OLIVIA
BARROWCLOUGH
올리비아 역
OLIVIA



존 카젝
JOHN KAZEK
존 역
JOHN



다비드
피니 카렌지
DAVIDE
PINI CARENZI
다비드 역
DAVIDE

만드는 사람들

Credit

출연
CAST

피터 켈리 Peter Kelly

폴린 골드스미스 Pauline Goldsmith

폴 토마스 히키 Paul Thomas Hickey

오로라 페레스 Aurora Peres

엘리시아 달리 Elicia Daly

올리비아 베로우클러프 Olivia Barrowclough

존 카zek John Kazek

다비드 피니 카렌지 Davide Pini Carenzi

스태프
STAFF

구성·연출 **매튜 렌튼**
 Conceived and Directed Matthew Lenton

원작 **모리스 마테를링크**
 Inspired by the play Interior by Maurice Maeterlinck

무대·조명 **카이 피셔**
 Set and lighting design by Kai Fischer

음악·음향 **알래스터 맥레이**
 Music and sound design by Alasdair Macrae

영상 **핀 로스**
 Projection and video design by Finn Ross

의상 **이브 램버트**
 Costume design by Eve Lambert

대본 **배니싱 포인트**
 Story and text by the Company

드라마투르크 **파멜라 카터**
 Dramaturg by Pamela Carter

협력연출 **다비드 피니 카렌지, 엘리시아 달리**
 Associate Director Davide Pini Carenzi, Elicia Daly

프로덕션 매니저 **니알 블랙**
 Production Manager Niall Black

투어 매니저·무대감독 **리 데이비스**
 Touring Production & Stage Manager Lee Davis

무대조감독 **카라 잭슨**
 Deputy Stage Manager Kara Jackson

조명 슈퍼바이저 **선 토마스 포드**
 Lighting Supervisor Sean Tomas Ford

음향 슈퍼바이저 **아미르 셔한**
 Sound Supervisor Amir Sherhan

영상 슈퍼바이저 **앤디 레이드**
 Video Supervisor Andy Reid

공연사진 팀 **모로조**
 Photography Tim Morozzo

프로듀서 **질리안 개러티**
 Producer Gillian Garrity (Raw Material)

제작 **배니싱 포인트**
 Created and Produced by Vanishing Point

배니싱 포인트
Vanishing Point

예술감독 **매튜 렌튼**
 Artistic Director Matthew Lenton

책임 프로듀서 **세브린 와이퍼**
 Executive Producer Severine Wyper

행정 프로듀서 **엘리노어 스코트**
 Administrative Producer Eleanor Scott

회계·예산 **브라이언 달리**
 Accountant & Finance Manager Brian Daly

홍보 **레스리 부스**
 PR Manager Lesley Booth

마케팅 **니알 워커**
 Marketing Consultant Niall Walker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무대기술 총괄 **김무석**

제작감독 **나혜민**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팀 **여국군 천세현 손은영 정재영 김채원**

의상팀 **최단비**

영상장비임차 **두잉미디어**

한글자막번역·제작·운영 **이재은**

자료번역 **조용경**

통역 **김연수 문새미** 이하은 심하윤 조용경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이송이**

마케팅 **김을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조영채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인 **스튜디오봄봄**

홍보영상 **602STUDIO**

옥외광고 **애니에드**

홍보를 인쇄 **인타임**

홍로그림 디자인 **스튜디오봄봄**

홍로그림 인쇄 **미립아트**

티켓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매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예 김인혜 노소연 박민주**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이지예 정해룡 이지는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이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유지율 고정은 강소현 강유석 장지영
채지성

작품개발 **정명주**

기획·초청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심소연**

주최·주관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혜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박소영 프로듀서 보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송이 변정원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김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인사·복무·복지후생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새별 조남용 홍아론

국립극단 임직원

National Theater Comapay of Korea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즈 Interiors

구성·연출 매튜 렌튼

Conceived and Directed Matthew Lenton

원작 모리스 마테를링크

Inspired by the play Interior by Maurice Maeterlinck

* 본 작품은 모리스 마테를링크 작 「인테리어Intérieur」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일정 2019년 11월 15일(금) - 11월 17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Myeongdong Theater

제작 배니싱 포인트 영국 스코틀랜드 Vanishing Point Scotland

주최·주관 (재)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2009년 4월 에든버러 트래버스 씨어터 초연

나폴리 시립극장·에든버러 트래버스 씨어터 공동 제작

런던 리릭 해머스미스 극장·글래스고 트론 씨어터 협력

영국 국립극장 스튜디오 작품 개발 지원

First premiere of the Traverse Theatre in Edinburgh, April 2009.

Originally co-produced with Teatro Stabile di Napoli and Traverse Theatre.

In association with Lyric Hammersmith and Tron Theatre.

Developed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Theatre Studio.

